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1호 [루게 제2719호]

주체 111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음력 9월 13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인민사랑을 싣고 출렁이는 만복의 바다

무릇 사람들은 무한대하게 펼쳐진 광경을 바다에 비겨 말하곤 한다.

얼마전 공화국의 황해남도 해주광장과 주변도로일대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배려하여주시는 현대적인 농기계 바다가 눈부리 아득하게 펼쳐져 도안의 인민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 인민생활문제를 푸는것이 나라를 지키는것이라고, 신심을 가지고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절명하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서도록 농업부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군수공업 부문에서 우리 식의 현대적인 농기계를 생산하여 기본복합기대인 황해남도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조치에 의하여 펼쳐진 농기계바다였다.

드넓은 전야를 뒤덮게 될 농기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뇌리에 못을 추억들이 파도쳐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광같은 인민사랑에 의해 펼쳐진 파수바다, 벼바다, 물고기바다, 남새바다...

주체 105(2016)년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 굴지의 청춘과일인 고산과수 종합농장에서 과일대풍을 이룩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함북도북부회복구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모스 농장을 찾으시였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사과바다를 기쁨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말 멋있다고, 가지마다 붉은 사과알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은 물고기대풍, 물고기바다

경은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옛날에는 사람 못살 고장으로 소문이 났던 고산땅이였다. 그러한 이 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황홀한 사과바다를 펼쳐주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이 광경에서 만족한 시선을 떼지 못하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야말로 물고기바다가 펼쳐졌다고, 정말 희한한 풍경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날 령동저장고마다에 천정이 닿도록, 사람이 들어갈 자리도 없이 가득 쌓아놓은 물고기대풍물고기들을 쏟아 열매를 맺은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은 물고기대풍, 물고기바다

도 펼쳐졌다. 주체105(2016)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8일수산사업소를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두앞에 펼쳐진 하륙장에 이르시였을 때 거기에서는 고기배에서 퍼내는 물고기가 수송관을 따라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있었다.

이 광경에서 만족한 시선을 떼지 못하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야말로 물고기바다가 펼쳐졌다고, 정말 희한한 풍경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날 령동저장고마다에 천정이 닿도록, 사람이 들어갈 자리도 없이 가득 쌓아놓은 물고기대풍물고기들을 쏟아 열매를 맺은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은 물고기대풍, 물고기바다

람이 없는 로인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돌봐줄것을 결심하고 조직한 사업소이라고 조용히 되뇌이시였다. 풍성한 식탁에 마주앉아 좋아하는 아이들과 로인들의 얼굴을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는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후 원수님께서 이 사업소를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 도처에 나라의 수산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여러 수산사업소들을 개건하여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변모시켜주시어 해마다 호모한 이채여경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은 황금의 벼바다도 펼쳐졌다.

몇해전 어느한 농장을 찾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

로 육중한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아주시였다.

새벽에 내린 비로 질박하게 젖은 포전에까지 들어가 시어 농작물의 상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종자혁명을 하여 비료를 적게 요구하면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는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해낼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다음해에도 이 농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이날 오래도록 풍년든 포전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포전에서 들려오는 벼바다, 강병이바다의 파도소리가 정말 좋다고, 설레이는 벼바다, 강병이바다의 파도소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념원하시던 만풍년의

노래소리이고 사회주의승리의 개가이며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나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남새바다도 펼쳐주시였다.

주체107(2018)년 7월중순 어느 일요일 숨막힐듯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함경북도 경성군에 자리잡고 있는 어느한 인민군부대의 비행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북도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 대규모온실농장의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우리모두 이 명당자리를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황금의 땅으로 전변시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뜨겁게 호소하

시였다.

이렇게 되어 경성군 중평은 실농장이 일떠서게 되었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지구에 건설한 온실농장보다 더 방대한 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에 일떠세워 함경남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게 할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금 함경남도에 회한한 남새바다를 펼칠 련포온실농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정녕 이 땅위에 펼쳐진 회한한 바다들은 공화국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을 안겨 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광같은 헌신의 세계가 펼친 인민사랑의 바다, 만복의 바다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 14기 제 22차전원회의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 14기 제 22차전원회의가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는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관리법과 수매법, 식물제품보호

법, 집집승중자관리법체택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위기관리법에는 보건위기, 자연재해위기와 같은 비상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위기발생시에 리용할 예비물자조성을 잘하고 방역부문과 보건부문, 재해방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어 있다.

수매법은 수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수

매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식물제품중권의 신청과 심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들이 식물제품중호법에, 집집승중자의 검정과 등록, 생산과 공급 및 판매, 관리와 리용 등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집집승중자관리법에 반영되어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관리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매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물제품중호법, 집집승중자관리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개천절행사가 3일 단군릉 앞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맹정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겸 서기국장, 박명철,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겸, 관개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

개천절 행사 진행

었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다.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조선민족

의 우수성을 만방에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우리 조국을 자주의 강국, 인민의 꿈과 이상이 꽃피나

는 락원으로 건설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평도필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상이 날이 높아지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불세출의 위인을

수령으로 모신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